

2021 06  
통권 제12호

# 한국통일협회보

U n i f i c a t i o n C o u n c i l o f K o r e a



제12호

# 韓國統一協會報

U n i f i c a t i o n   C o u n c i l   o f   K o r e a

## Contents

04	협회 소식
10	제1차 한백포럼
22	회원 논단
28	회원 경조사
30	동호회 활동
31	UCOK 마당
49	건강 코너



## 협회소식

### ◆ 2021년 1차 운영자문단 회의 개최

우리 협회는 5.10(월) 오후 3시반 협회 사무실에서 제1차 운영자문단회의를 개최하고, 사무처로부터 올해 4월까지 사업실적 및 재정현황을 보고받고 5월이후 사업계획과 현안사항 등을 협의하였다. 운영자문단회의는 전직 차관으로 구성된 우리 협회의 자문조직으로서 현재 17분이 활동하고 있다.

### ◆ 2021년 1차 부회장단 회의 개최

우리 협회는 5.11(화) 오후 3시반 협회 사무실에서 제1차 부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사무처로부터 올해 4월까지 사업실적 및 재정현황을 보고받은후 5월이후 사업계획 및 현안사항들을 협의하였다. 현재 부회장으로 수고하시는 분은 김형기, 이관세, 홍양호, 김형석, 박홍렬, 고경빈, 김중태, 한홍기, 김방지, 권영경, 윤미량 등 11분이다.

### ◆ 2021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참가

우리 협회는 통일부가 주최하는 "2021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의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새로운 남북관계 비전과 한반도 평화, 경제, 생명공동체"라는 대주제로 진행되는 금번 포럼에서 우리 협회는 "남북기본합의서 30주년 평가와 의미"라는 소주제로 한 세션을 담당할 계획이다.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은 통일부가 주최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1.5트랙 다자 국제포럼으로서, 2010년 창설된 이래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주제로 매년 전 세계 20여개 국가의 북한 및 한반도 문제에 관한 연구자들과 시민사회 활동가 및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번 포럼 참가를 통해

우리 협회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역량과 경험들이 충분히 발휘됨으로써 포럼의 성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 통일부 관계관 업무협의회 개최

우리 협회는 5.5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통일부 관계관과 업무협의회를 개최하고 협회와 통일부간 2개월에 한번 정례협의회를 갖기로 하는 합의하는 등 폭 넓은 협의를 가졌다. 이번 협의회에서 협회는 김형석 상근부회장과 김영도 사무총장, 김원호 이사, 조규봉 이사, 김충환 이사, 곽정탁 이사 등이 참석하였고, 통일부에서는 최영준 차관, 이상민 기획조정실장, 추석용 정책기획관, 조영석 혁신행정담당관 등이 참석하였다. 2차 정례협의회는 7월중 통일정책실과 가질 예정이다.

#### ◆ 2021년 2차 이사회 개최

우리 협회는 5.12(수) 오후 3시반 협회 사무실에서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사무처로부터 4월까지 사업실적 및 재정현황을 보고받은후 이를 승인하고, 5월이후 사업계획 및 현안사항을 심의 의결하였다. 이날 이사회에는 총20명의 이사중 17명이 참석(위임포함)하였다. 협회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열성을 가지시고 봉사하시는 이사님은 정세현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김형석, 한기수, 김충환, 임병철, 정부락, 양재성, 김원호, 서상덕, 최영일, 이용현, 이준우, 조규봉, 박희봉, 변만근, 곽정탁, 곽병채, 강석승, 김수일, 김영도 등 20분이다.



### ◆ 한방침구교실 운영

우리 협회는 6.1부터 협회 사무실에 한방침구교실을 개설하였다. 서상덕 이사를 비롯한 한국정통침구학회 회원들이 자원해서 봉사하는 금번 한방침구교실은 매주 화요일 오전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하며 이용은 무료이다. 회원님들의 많은 이용 바란다.



### ◆ 제1차 한백포럼 개최

우리 협회는 6.15(화) 오후2시반 르네상스타워 6층 숙정홀에서 제1차 한백포럼을 개최하였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평가와 의미"라는 주제로 개최된 금번 포럼은 정세현 회장의 개회인사가 있는 다음 김형석 상근부회장의 사회로 김형기 부회장과 홍양호 부회장이 각각 발제하였고,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포럼 시작전 금번 포럼 명칭에 공모하신 3분의 입상자(당선: 정동문, 입선: 신언상, 문대근)들에게 정세현 회장으로부터 선물 증정이 있었다. 한백포럼은 앞으로 매월 남북 및 통일관계 주요현안들에 대한 회원들간의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서 회원들의 재직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를 위한 장으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 제2차 한백포럼은 7.23(금) 개최할 예정이다.











## 제1차 한백포럼

###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평가와 의미(1)



김 형 기  
(부회장)

#### 1. 배경과 진행

##### <정상회담 이전>

'94년 정상회담을 위한 예비접촉(6.28)과 통신·경호 등 실무자접촉 후 남북 간에 회담 중단

- 북한은 김일성 사망 당시 비상경계태세, 조문 파동, 반공·반북 분위기(6.25전범, 주사파 문제 등)에 분개, 대남방송 재개, 일체 접촉 차단 등 적대적 태도 유지

- '95년의 쌀 지원회담도 베이징에서, '비당국 지원 형식'

\* '97년 5월~'98년 3월 적십자 대표접촉도 한반도 내 개최 거부

○ 북한은 김일성 사망, 대홍수, 심각한 식량난·외화난, 탈북자 급증, 김정일의 3년상 등으로 '고난의 행군' → '선군정치'

- 비전향장기수 송환문제, 잠수함 무장요원 침투, 황장엽 망명사건 등도 중첩

- 김정일은 3년상 끝내고 '97.10.8에야 유훈통치 벗고 당 총비서로 전면에 나서기 시작.  
'98년에 헌법 개정하여 최고 직책으로 격상시킨 국방위원장 재추대, 김정일 시대 본격 개막  
'98년 2월 김대중 정부 출범 후 포용정책(햇볕정책) 적극 추진-개입의 확대를 통해 스스로 변화를 선택토록 함

- 미국 클린턴 정부도 지지, 협조
- 북한은 포용정책의 실체를 탐색하며 시간 벌기
  - 4년 만의 당국 간 회담 개최에 호응(비료 지원)했으나 ‘상호주의’로 결렬
  - ’98년과 ’99년은 북한이 권력구조 대폭 개편하고 사회 기강 다잡고 재정 살리는 등 산적한 내부 과제에 집중(김일성 없는 시대 추스르기)
  - 연북화해정책, 국보법 철폐, 안기부 해체, 외세와의 공조 파기 등 선행조건 요구, 포용정책에 대해 “반북·반통일 대결정책, 미국의 평화적 이행전략 변종, 흡수통일 하려는 모략책동”이라고 비난
  - 상호주의의 비동시적, 비대칭적, 비등가적 적용과 페리 프로세스에의 기여 등 평가, 그러나 서해교전, 금강산 관광객 억류 사건 등 장애 발생
- 요시다 다케시를 통한 반응, 남측의 정확한 의도 확인 위해 비밀접촉 제의
  - 박지원과 송호경의 싱가포르, 상하이, 베이징 접촉(김영남과 정상회담+김정일 상봉, 경제원조 구체적 약속이 난관)
  - 4월10일 합의서 발표(6.12~14 평양 방문)
- 북한의 호응 이유
  - 김정일 체제 공고화(경제적 애로 타개, 통일지도자 면모 과시)
  - 포용정책의 진정성, 베를린 선언(북한의 안전과 경제회복, 국제사회 진출 보장)
  - 대미관계 개선 디딤돌
- 장애요소
  -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 의제 논의와 공동선언 구체 내용 협의 미비
  - 금수산 기념궁전 참배 요구
  - 일정을 13일~15일로 조정(체제 특성?, 협상 전술?, 대가 미지급?)
  - 대학가 인공기 게양 사법처리
  - 공동선언 서명 주체

### <정상회담 이후>

- 회담의 정례화,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진행
  - 장관급회담 중심 다양한 분야: 군사, 경제, 사회문화, 인도
  - 3대 경험사업 추진
- 2000년 10월 조명록 차수가 방미, 올브라이트 회담, 클린턴 예방, 공동코뮤니케 발표 (북미관계 개선, 적대의사 불보유 등)
  - 10.23 올브라이트 방북, 클린턴 방북은 불발
- 2001년 출범한 부시 정부는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 '독재자', '피그미', '악의 축', 핵 선제공격대상
  - 2002년 10월 켈리 동아태차관보의 방북 이후 고농축우라늄 개발계획 존재를 발표, 2차 핵위기 도래
  - 미국은 이라크 침공 준비, 당분간 북핵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봉합해 두려는 입장, 제네바 합의에 따른 중유 공급도 중단
- \*북한은 결국 2003년 1월10일 NPT 탈퇴 선언
- 우리 내부정세도 대북정책 추진의 동력 약화
  - DJP 공조체제 균열, 대통령의 민주당 총재직 사퇴(2001.11), 야당의 퍼주기론과 색깔론, 북한 선박 제주해협 통과와 민족통일대축전 행사 돌출행동('만경대 정신'), 연평해전 등 사건
- 2002년 하반기에는 북한이 흐름을 반전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
  - 연평해전 후 즉각 유감 표명
  - 회담 재개, 부산아시안게임 참가, 경제시찰단 파견, 이산가족 상봉, 통일축구경기 등 급속한 화해 무드 복원
  - 차기 정부의 화해협력정책 지속성 확보 여건 조성
- 잔여 임기, 남남갈등, 군사적 보장문제 타결 지연, 2차 핵위기 등으로 진전에 한계
  - 철도·도로 연결과 실제 운행, 금강산 육로관광, 개성공단 착공식 및 본격 가동을 결국 차기 정부로 넘기게 됨

## 2. 평가와 의미

- 1948년 남북에 각기 정부 수립 후 **52년 만에 처음** 남북 정상회담
  - 공동선언을 최고당국자가 직접 합의, 서명-**실천적 규범력**
  - \* 불신과 대결의 시대를 마감하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여는 바탕을 마련, 남북관계사에 중대한 전환점
  - **공통 인식 확인**: 체제 인정, 당사자 간 대화로 해결, 통일 보다는 분단 상황의 평화적 관리가 중요
- 안정적 북한 관리와 평화 확보로 **외환위기(IMF 관리체제) 벗어나는데 기여**
  - 경제발전 지속을 위한 신개척지의 비전
-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명분과 여건을 꾸준히 조성하고,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실천 행동으로 신뢰를 구축한 결과
  - 흡수통일 불추진, 통일 보다는 ‘사실상의 통일’
  - 정경분리 원칙(한반도 정세와 무관하게 경제적 논리 하에 경제협력 추진)
  - 경협 활성화 조치, 소떼 방북, 금강산 관광사업
- 한반도 냉전 종식과 자유민주주의 확대라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와 부합, **한·미 공조 체제 작동** - ‘운전자석에 앉으시라’
-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미·일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외자 투입환경을 조성하여 경제발전의 모티브를 마련한다는 전략아래 **부분적 개혁·개방을 준비중**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2차 핵위기 발생으로 무위에 그치고 말았음 → **하노이 결렬 상황과 유사**
  - 2000년대 들어와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의 한계를 인식하고 ‘실리사회주의’(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경제활동에서 수익성을 앞세움), ‘신사고론’(폐쇄적 사고의 틀을 버리고 모든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풀어나감)을 적극 주장

### (1) 대외개방정책 추진-전방위 외교

- 김정일 방중:2000.5, 2001.1(상하이 푸둥지구 시찰)
- 2000.7 푸틴 방북, 김정일 모스크바(2001.7)와 극동지구(2002.8) 방문
- EU 이탈리아 등 8개국과 수교, 2001.5 페르손 의장 방북
- 2002.9 고이즈미 총리 방북(평양선언)

## (2) 7.1 경제관리개선조치(2002)

- 사회주의 체제 유지하면서 최대의 실리 도모(분권화, 시장화, 화폐화), 계획경제 기본틀 안에서 시장경제의 기능 일부 활용
- 경제 단위의 자율성·재량권 확대, 독립채산제 강화, 임금의 차등 지급, 가격체계 현실화, 시장 인정, 개인 경작 확대, 경제특구 설치 등

### ○ 최고책임자간 의사소통, 의견 차이 돌파구 마련 위한 특사회담 유효

- 2000.9 김용순 방남: 식량지원과 국방장관회담, 이산가족
- 2002.4 임동원 특사: 부시 정부의 강경정책, 9.11테러 상황으로 소강국면에서 동해선 연결, 부산아세안게임 참가, 경제시찰단 파견 합의, 미국 특사 방북 수용, 고이즈미 총리 초청 등 설득
- 2003.1 임동원 특사와 노무현 당선자측 인사 방북: 김정일 면담은 불발, 남북관계의 지속 발전 의사 전달

## ※ 6.15 공동선언

- 제1항: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
  - 제2항: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
  - 제3항: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비전향장기수문제 해결
  - 제4항: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 활성화
  - 제5항: 합의사항 조속 실천 위해 당국 간 대화 개최
- \* 김정일 위원장 적절한 시기에 서울 방문

## ※ 북한, 금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당규약 개정

-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과업 수행→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
  - 당원의 의무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부분을 삭제
  - 그러나 채택 결정서에서 강력한 국방력으로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 한다는 것을 밝힌 바 있음
  - ‘우리국가제일주의’ 구호의 의미와 통일우선·대남혁명노선의 변화
- \*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은 인민대중제일주의(경제건설 총력집중 의미)

##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평가와 의미(2)



홍 양 호  
(부회장)

### 1. 2000년도 남북정상회담의 의의

< 「통일백서」, 2001, 2002, 2003 >

▶ **민족사적으로 큰 의미** : □ 분단 55년만에 첫 정상 만남 및 실천사항 합의 도출, □ 남북 당사자간 해결 의지 구현, □ 남북간 화해협력의 제도화, □ 동북아 평화에 기여, □ 대북 화해 협력정책 지속적 추진의 결실

▶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전 상황** : □ 남북간 회담의 다양화·정례화, □ 이산가족문제 등 인도적 문제 해결, □ 남북교류협력의 획기적 진전, □ 북한의 변화 가속화, □ 국제무대에서의 남북협력 증대, □ 한반도 냉전종식 과정 진입

⇒ 당시 김대중정부의 화해협력정책 목표에 바탕한 정책 의미를 규정

당시 김대중정부는 현실적 입장에서 임기중 통일(통일정책)보다는 남북관계 개선(대북정책)에 중점을 두고,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남북한 화해협력, 냉전구조 해소,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 구축을 도모, 궁극적으로 통일에 기여.

< 김대중 대통령, 6·15 남북공동선언 4주년 기념 국제토론회, 2004 >

□ 남북의 정상이 직접 만남, 국정을 총괄하고 군을 통수하는 사람들이 공식으로 민족의 평화와 협력과 통일을 논의하고 합의한 것. 이렇게 함으로써 남북간 긴장이 급속히 완화되었고, 화해와 협력을 위한 구체적 일들을 실현시킬 수 있겠다 생각, □ 지난 4년 구체적 실천들이 뒤따랐음. □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사이에 사람이 서로 왕래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과거의 남북 상호간 불신이나 적대감이 크게 사라짐. 우리는 다시 통일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음. □ 한반도 미래를 위해 평화적으로 공존, 교류협력 해야 함.

### < 임동원 장관, 상기 4주년 기념토론회 >

□ 국민의 정부는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 궁극적으로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자 함.

6·15 남북공동선언은 냉전 종식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임. 이런 의미에서 6·15선언의 의의는

□ 남북간 전쟁위험을 해소해 나갈 수 있게 되었음. □ 통일은 자주와 평화의 원칙에 따라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 자주적 해결은 ‘배타적 자주’가 아니라 ‘열린 자주’라는 것을

분명히 함. □ 남북 합의가 실천으로 옮겨져 상호 신뢰 조성이 가능하게 됨. □ 남북이 각기

내부적으로 바람직한 변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이 해소.

□ 그러나 한반도 탈냉전의 과정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음.

- 탈냉전 과제로 · 북미간의 관계 개선, ·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군비통제 실현, ·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경제현대화 추진, 북한의 경제현대화를 위해 핵문제와 북미관계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함.

□ 한반도문제를 우리 스스로 풀어 나갈 수 있음을 과시했으며, 이러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임

### < 원동연, 상기 4주년 기념토론회 >

□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민족주체적 입장에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

나가는 우리 민족끼리의 시대, 6·15 통일시대를 열어놓은 일대사변.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6·15 북남공동선언의 진수, 기본핵은 《우리 민족끼리》라고 할 수 있음. 처음으로 《우리 민족

끼리》의 이념이 제시. 남에서 6·15 전에는 미국이 ‘우방’이고 북을 ‘위험스러운 나라’로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면 6·15 이후에는 미국을 ‘가장 혐오스럽고 위험스러운 나라’로 보는 반면에

북은 ‘함께 살아가갈 동포로 보는 사람’으로 옹게 보고 북과 손잡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음. 또한 미국과의 ‘수직관계’를 ‘수평관계’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로

되고 있음. □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북과 남이 힘을 합쳐 민족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민족공조의 새 역사를 펼쳐놓은 일대 사변. 외세의 우리 민족 분열리간 역사를 바꾸고 민족공조의

새시대를 펼쳐 놓았음. 민족공조이자 민족대단결이 곧 조국통일임. 6·15선언은 새 세기의 민족

단합헌장, 민족공조 선언임. □ 조선반도에서 평화의 새 국면을 열어놓음으로써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고 지역의 안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한 민족사적·인류사적 사변. 조선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불러오는 요인은 크게 외부적 요인(외세의 적대시 정책)과 내부적 요인(외세의 분열과



대결정책으로 인한 북남사이의 오해와 불신, 북침과 남침 위협) 두 가지임. 미국은 6·15공동선언으로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존재를 유지할 명분도, 전쟁정책을 합리화할 구실도 완전히 상실하였음. 6·15 공동선언이 있고 우리의 위대한 선군정치와 남의 광범위한 반전평화운동이 있는 한 그 어떤 외세도 감히 조선반도에서 함부로 전쟁의 불집을 터뜨리지 못할 것임.

※ 남한에서 공개적으로 개최된 토론회라 원동연의 발표 내용은 정치선전적인 측면도 있으나,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에 대한 북한의 기본적인 시각을 알 수 있는 측면이 있음. 원동연은 통전부 관계자라 통전부적 시각의 한계도 있다고 봄.

#### < 개인적 평가 >

- 남북관계사, 통일의 역사에 있어서 남북정상이 처음으로 만나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합의한 역사적 의의가 있음. 남북정상회담의 선례 구축
- 여러 가지 심리적, 구조적 장애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강화된 내부 역량을 바탕으로 이를 잘 극복하여 남북문제, 통일문제의 당사자 해결 원칙과 노력을 과감하게 실천하고 보였음.
- 1인 수령지배체제로서의 북한정치체제 특성을 고려하여,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일괄타결하고 구체적 실천력을 확보하였음.
-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과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실체를 더욱 자세히 알게 된 측면도 있었지만, 극복해야 할 과제가 첩첩산중이고 해결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됨(인내심, 원칙과 유연성 요구).
- 대북 포용(관여)정책의 실효성을 구체적으로 검증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색깔 논쟁’)이 발생하고,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음. 서독내에서도 치열한 정책논쟁의 과정을 거쳤듯이 우리에게도 거쳐야 할 과정이 발생한 것이고 민주체제에서 정책의 내부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의 중요성이 인식됨

※ 대북 포용(관여)정책을 처음으로 시도한 노태우 정부는 당시 상황상 사회적 갈등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음. 노무현정부때 사회적 갈등(‘퍼주기’ 논란)이 크게 나타났음.

## 2.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배경과 상황상 이해관계의 matching

-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은 남한과 북한의 최고리더십의 전략적 판단과 추진 의지, 그리고 당시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협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 측의 이해관계가 잘 matching이 된 결과라고 봄.
- 남한은 김대중 대통령의 평소 통일철학과 남북관계 진전 의지, 현실적 접근과 실용주의 사고, 그리고 노벨평화상에 대한 야심 등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하였음. 그리고 전략적이고 유능한 참모가 뒷받침.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중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통일을 추구하는 대신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대북정책을 집중 추진하였음. 남북간의 이념적 대결 보다는 실질적인 성과를 산출코자하는 실용적 입장을 취하였음. 그리고 북한이 단기간에 붕괴될 가능성이 적다는 판단에 따라 남북한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을 점차 변화시키고, 한반도 평화여건을 만들어나가겠다는 점진적·단계적 입장을 취함. 그리고 북한이 필요로 하는, 우위에 있는 우리의 경제력을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북한을 우리의 정책목표로 견인 (미끼로 유인 및 연계전략)해 나가려는 전략을 구사하였음. 공세적 포용정책이라 할 수 있음. 당시 미국의 클린튼 정부의 ‘개입과 확대 전략(Engagement and Enlargement Strategy)’도 김대중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는데 유리한 국제 환경을 제공했음 (미국과 공조 분위기 형성). 당시 북핵문제는 제네바 합의 이행으로 별문제가 노출되지 않았음.
-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이 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절 이후 당시 어려운 경제난 극복과 북한체제를 어떻게 영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전략적 고민 중.

김대중 정부 초기의 햇볕정책에 대해 ‘평화적 이행술수’로 의심하다가 그 이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남한당국의 대북 경제지원 의사에 관심. 당시 진행중인 현대의 7대 대북 경협사업 대가와 금강산관광 대가로 경제적 실리를 맛보고 있던 중. 그래서 북한체제에 위협적인 요소는 적극 경계심을 갖고 방어해가면서, 남한으로부터 과실을 따먹는 실리전략(cherry picking)을 선택. 남북정상회담 대가도 요구. 나중에 북한의 내부 전략을 유추해보니, 북한은 어려운 체제를 극복해나가기 위해 국방우선으로 내부 중요자원은 우선적으로 군수분야에 투입하고(‘선군경제 노선’), 식량과 비료 등 식량분야는 남한의 지원으로 보충하고, 인민경제분야는 배급제를 폐지하고 독립채산제 도입 등 ‘7.1경제관리개선조치’로 단위별 자력갱생체제로 위기를 극복하는 내부 전략 수립. 이와 같은 전략적 배경이 김정일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에 나오게 된 배경 중 하나로 작용했으리라 봄. 그리고 대남관계를 통해 미국과 접근(통남접미)하여 미국과 관계개선 통해

북한 체제 보장받으려 전략적 접근. 당시 중국은 북한이 폐쇄체제에서 중국처럼 개혁·개방체제로 나올 것을 권유하고 남북협력도 권유하는 입장(신의주 자유행정청 양변 사례)이라 중국과 마찰이 없었음.

- 북한과 독점적으로 대규모 경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측 입장에서 남북당국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보장·촉진해주는 울타리가 필요해 남북정상회담을 막후에서 적극 중개 등 일정한 역할을 수행함. 현대측의 주선에 의해 재일동포 출신인 ‘요시다 다케시’를 통해 북측에 남북정상회담 의사를 타진함. 대북 송금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 이와 같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잘 matching 되어 성공적으로 성사됨. 그리고 비교적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잘 충족되어 안정적으로 합의사항이 이행됨. 당시 최고리더십의 전략적 판단과 추진 의지, 그리고 전략적 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의 남북정상회담은 성사되었고 비교적 순탄하게 이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그 이후 정책환경이 바뀌면서 대북 정책 추진에 장애가 발생하고 남북관계는 후퇴와 전진이 반복되고 국내적으로 갈등이 심각하게 나타났음. 미국의 보수적인 부시정부 등장, 제2의 북핵 위기 발생, 남·북한 각기 최고리더십의 교체 등 김대중 정부의 안정적이고 유리한 대북정책 환경과는 다른 정책환경이 등장.

### 3. 남북관계사에서 본 북한의 대남전략 분석

- 남북관계사를 총괄적으로 볼 때, 북한은 대내외 정세에 바탕을 둔 전략적 사고로 통일 및 대남정책 수행.
- 북한이 남한보다 강하다고 생각할 때는 공세적인 대남 혁명전략을 구사하고, 대등하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체제를 약화시키려는 통일전선전략을 구사. 남한보다 약해 위기를 느낄 때는 체제 방어 및 보장을 위해 시간별기 전략을 구사하며, 그 과정에서 대남 위계전략을 구사.
- 198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이 남한에 비해 국력이 열세에 놓이고 공산진영이 무너지자 북한 정권 및 체제에 위기를 느껴 3년 반 정도의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과 본회담을 통해 시간별기 전략 구사. 남북 불가침 및 공존이 보장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으로 북한 정권 및 체제 보장 확인 후 동 합의서 이행 소극적 입장 및 결국 사문화하는 위계전략 구사. 북측은 기본합의서는 ‘남측 문건이다’, ‘백만대군을 얻은 것과 같다’고 언급.

-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체제생존을 위한 실리전략을 구사하여 남한으로부터 최대한 경제 지원을 받아 민생경제를 보충하는 한편 선군경제노선에 따라 은밀히 핵 및 미사일 개발 등 국방력 강화하는 위계전략 구사. 전면에는 남북화해 협력 무드를 조성해 실리를 취하면서 뒤에서는 대남 비대칭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야심찬 목표 추구. 노무현 정부때는 김대중 정부때 보다 더 많은 대북 경제 지원에도 불구하고 핵실험 강행.
- 김정은 정권때는 핵무기 완성 및 ICBM 개발을 카드로 하여 대남·대미 빅딜 전략 구사. 통남접미를 거쳐 봉남통미 전략 구사. 남한의 효용성 상실되자 대남 강경정책 구사. 북한의 북핵 전면 포기 가능성 여부 계속 논란 중 북한의 숨은 전략이 무엇인지?
- 이와 같은 남북관계사의 큰 흐름으로 본 북한의 대남전략을 통해 볼 때 우리의 대북정책 추진시 지나친 낙관적인 전제는 금물. 우리의 평화적, 단계적, 점진적 노력은 변함없이 추진 하되 보다 정교한 전략이 필요.

#### 4. 마무리

- 김대중 정부때 2000년 남북정상회담은 그 당시 상황으로 국한해 볼 때는 최적의 대북 공세적 포용정책의 결정판이라고 볼 수 있음.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방법으로 화해와 교류협력의 활성화로 북한 변화와 한반도 평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합리적 전략의 결과 라고 봄.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대내외 정책환경도 좋은 것이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가져 왔다고 봄.
- 그러나 좀 더 time span을 길게 보면, 김정일 위원장은 위계전략을 구사했음. 남한으로부터 경제적 실리를 취하면서 은밀하게는 ‘선군경제노선’에 따라 대남 비대칭 군사력 우위를 확보 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 김정일 위원장의 남한 방문 약속도 지키지 않았음.
- 북한에게는 진정한 남북한간 화해와 협력보다는 김씨 정권 및 북한 체제 고수가 최우선 입장임. 그리고 남한에 비해 열세에 놓인 군사력 강화를 위해 비대칭 군사력 강화에 올인 했음. 북한입장에서는 절대절명의 당연한 조치라고 봄.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 우리의 박정희 정부의 ‘선 건설 후 통일’정책에 비유할 수 있음. 남북한간 체제 경쟁의 관점에서 보면 상대방보다 약할 때는 자기 체제를 강화시켜 놓은 후에 공세적인 정책을 구사할 수 있음. 자기 체제를 강화하여 상대방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는 시간을 벌어 버티고 위계도 사용하는 것임. 그래서 이와 같은 기본적인 속성을 이해한 바탕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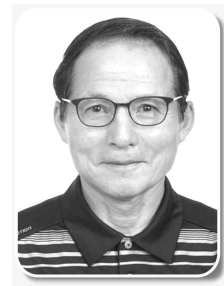
상대방에 대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봄. 일방적인 낙관적 정책은 금물이라고 봄. 특히 북한은 만만한 상대가 아님.

- 우리가 평화를 지향하고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대북 및 통일정책은 평화적이고 민주적이며, 이질화로 인해 점진적·단계적인 접근방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밖에 없음.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남북화해와 민족 동질성을 높이면서, 군비통제적 방법으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북핵문제를 해결하며, 통일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변화를 유도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북한을 견인할 레버리지를 많이 갖고 있어야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야 함. 지나친 낙관에 바탕 하기 보다 신중하면서도 정교한 전략전술을 사용해야 한다고 봄. 그리고 내부동력을 확보 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를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함. 대북정책 기획 및 추진자에게는 뜨거운 가슴보다는 차가운 머리가 우선 요구되어짐.



## 회원 논단

### 남북한 평화통일 방안 대강(大綱)



박 경 석  
(운영위원)

#### 1. 남북한 평화통일의 당위성

##### 가. 대한민국 헌법

- 전 문 : ...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 제3조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제4조 :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제5조 ① :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 제66조 ③ :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 나. 평화통일의 사례 및 교훈

- 분단국 통일 사례 : 독일, 베트남, 예멘

- 역대 정부의 평화통일정책 : 7·4 공동선언, 7·7 선언, 남북기본합의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대북화해협력정책, 평화번영정책, 대북상생공영정책 등

#### 다. 통일정책의 일관성 유지

- 보수 및 진보 진영의 주장을 수용,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평화정착과 평화통일만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

## 2. 남북한 평화통일 방안 기본 방침

### 가. 무력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 북한을 무력으로 먼저 공격하거나 무력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 북한이 무력으로 공격하면 즉각 응전하고 그 이상의 보복을 실시한다.
- 북한이 무력으로 통일을 추구하면 이를 격퇴하고 북한지역을 수복하여 통일을 달성한다.

### 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는다.

- 북한을 흡수하여 통일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
- 그러나 북한이 스스로 남한으로의 편입을 원하면 이를 거절하지는 않는다.

### 다. 평화통일을 추구한다.

- 평화통일은 남북간의 합의에 의한 통일을 의미한다.
- 남북간의 합의통일은 북한이 개혁, 개방을 추진하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고 남한에 근접한 수준의 경제력을 달성할 때에 가능하다.
-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은 체제전환과 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남한은 이를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 라. 남북한 평화통일 방안은 남한이 북한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대북정책이다.

-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이 전제되어야 함을 북한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하고, 남한이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

- 북한의 현 체제를 비난하거나 공개적으로 개혁, 개방을 요구하여 자극하지 말고 체제전환의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설득하여 북한이 스스로 변화를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 모든 대북정책은 북한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어야 한다.

### 3. 남북한 평화통일 방안 주요 내용

#### 가. 평화 정착

##### (1) 평화 확보

- 북한의 침공 시 방어할 수 있는 국방력 확보
    - － 북한의 전면 도발을 저지할 수 있는 국방력 : 북한전력의 최소 70% 이상
  - 북한의 국지적 도발 시 즉각 응징의 결의 표명 및 보복능력 확보로 도발 억제
    - － 북한의 도발 시 즉각 응징한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즉각 응징함으로써 우리의 의지와 능력을 과시
  - 북한의 전면적 무력침공 시에는 이를 응전·격퇴함은 물론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의지 표명 및 이에 필요한 군사력 확보
    - － 북한이 무력으로 공산화 통일을 획책할 시에는 이를 격퇴할 뿐만 아니라 북한정권을 무너뜨리고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필요한 군사력 확보
- (자체 또는 우방의 지원 등)

##### (2) 평화 정착

- 남북간 화해·협력 강화로 신뢰증진 및 군사회담을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 전방배치 무력의 후방 이동 및 군비축소로 실질적인 평화 정착 추진
-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및 노동당 규약의 개정으로 대남 적화통일 포기 유도
- 남북대화 및 6자회담, 미·북간 협의, 종전 선언 등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 (3) 북한 핵문제 해결

#### (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유

-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체제 및 정권 안정 확보
-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 경제난 등으로 인한 주민 동요 단속 및 내부체제 결속
- 경제력 약화로 인한 대남 군사적 열세의 극복
- 핵무기 수출로 외화 확보 수단 등

#### (나) 북한 핵과 한국

- 남북간 군사력 균형이 깨지고 북한의 핵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
- 핵무기 개발 유혹에 직면
- 국민들의 안보 우려, 대북 불신감 증대 및 대북 지원, 교류협력에 부정적 영향

#### (다) 북한 핵과 미국

- 미국 본토 및 해외 주둔 미군, 해외 거주 미국인에 대한 위협
- 한국, 일본 등으로의 핵 확산 우려
- 테러단체로의 핵무기 유출 우려 등

#### (라) 북한 핵과 일본

- 북한으로부터의 직접적인 핵 공격 위협에 노출
- 핵무기 개발에 대한 유혹 등

#### (마) 북한 핵문제 대책

##### (i) 한국의 대책

- 월등한 국력을 바탕으로 북한과 핵무기 개발 경쟁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
- 미국과의 안보협력 강화로 북한의 핵위협에 공동 대응  
(한미상호방위조약, 방위비 분담 등)
- 남북대화 및 북핵 6자회담 등을 통한 해결방안 강구

(ii) 미국의 대책

- 북한과 직접적인 교섭을 통한 해결
  - － 북한 : 핵개발 포기 및 핵물질 완전 제거 등
  - － 미국 :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 불가침 협정 체결, 국교수립 및 경제지원 등
- 북핵 6자회담 등 다자 회담 등을 통한 해결
- 평화적 해결노력이 무산되면 무력을 통한 해결방안도 고려

나. 평화 지원

- 인도적 동포애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식량, 비료 등을 지원하되, 남한의 인도적문제인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과 연계하여 추진
- 다른 대북지원사업도 개발지원 사업 형태로 추진
- 북한 인권문제도 말로써 북한을 자극하지 말고, 인도적 문제 해결 차원에서 대북 지원, 남북경협(SOC 투자, 차관 제공 등) 등과 연계하여 구체적 성과를 도출

다. 평화 교류

- 문화, 예술, 체육, 학술, 종교 등 전 분야에 걸쳐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중점을 두고 교류 추진
- 동시에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할 수 방법으로 연계하여 추진

라. 평화 협력

- 민간분야 경제협력은 민간의 자율적인 판단 하에 시장원리에 의거 추진토록 하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
- 북한의 SOC 건설 등 정부차원의 경제협력은 남북경협 관련 제도 개선, 북한의 개혁·개방 조치, 북한인권 개선, 평화증진 조치 등 구체적 성과와 연계하여 추진

마. 평화 교육

- 평화 공존, 평화 정착, 평화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자신감 확보

- 남북한 평화통일 방안에 대한 정당성과 구체적 내용에 대한 교육 중점
- 북한의 실상과 남북관계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이해에 중점
  - 북한방문 기회의 확대를 통한 살아있는 통일교육 실시

※ 한 번의 금강산 관광이 30년 동안의 통일교육보다 더 효과적이었다는 평가

#### 바. 평화 통일

- 남북간 평화정착, 자유왕래 등 높은 수준의 화해·협력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남북한 평화통일 방안에 입각한 대북정책 지속 추진
-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으로 ‘사실상의 통일’ 상태에 이르러 남한과 통일논의에 자신감을 갖고 응할 때까지 구체적인 통일논의 제의 지양
- 남북연합 등 과도체제를 거쳐 단일의 통일국가(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달성하는 평화통일 방안에 대한 남북간 합의 도출
-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통일국가 건설      -끝-

\*\* 필자가 오래 전부터 생각했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회원 경조사

### ◆ 삼가 고인의 冥福을 빕니다.

김공열 운영위원 부인 별세(5.6)	정하웅 운영위원 별세(6.8)
---------------------	------------------

### ◆ 「회원 동정」게재 안내

「한국통일협회보」에는 회원님들의 동정 및 주소·전화번호 변동사항, 저술·수상·학위취득 사항, 세미나·포럼·강연회, 수필·시·사진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무처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회원 경조사 연락 안내

회원님들의 가정에 경조사가 있을 시 소정의 경조금(화환)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 자녀 결혼: 10만원 또는 花環, 본인 별세: 20만원(弔慰金 및 弔花),

부모·배우자 별세: 10만원 또는 弔花, 빙부모 별세: 협회 弔旗 비치

### ◆ 회비 납부 안내

우리 협회는 통일부 등 외부 기관단체의 일체 지원 없이 전적으로 자력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비는 회원 경조사 및 친목, 협회 운영 활성화 및 각종사업에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회비는 회장 100만원, 부회장 50만원, 운영자문단 50만원, 이사 및 감사 30만원, 운영위원 15만원, 일반회원 5만원입니다. 협회 정관(제6조)은 회원의 회비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 계좌번호 안내 ♥

○ 농 협	0 3 2 - 0 1 - 1 8 4 1 3 3	사단법인 한국통일협회
○ 우 체 국	0 1 0 0 4 1 - 0 1 - 0 4 4 0 5 3	사단법인 한국통일협회
○ 우 리 은 행	1 0 0 6 - 4 0 1 - 4 3 6 6 6 2	사단법인 한국통일협회

## 회비 납부 현황(2021.1.1~6.20)

직 책	회 비	납부 현황
고 문	임의	
명예회장	100만원	서극성(100)
회 장	100만원	정세현(100)
부회장	50만원	김방지(50), 전경만(50), 김형석(50), 홍양호(100), 고경빈(5), 김형기(50), 이관세(50), 권영경(50), 김중태(50)
운영자문단	50만원	김남식(30)
이 사	30만원	박희봉(30), 김수일(45), 광병채(30), 이용현(30), 김충환(30), 김영도(30), 최영일(30), 정부락(30), 변만근(30), 조규봉(30), 임병철(30), 광정택(30)
감 사	30만원	이강락(30), 장상호(30)
운영위원	15만원	김영상(15), 진준남(5), 한상학(15), 원기선(15), 황병일(5), 김용환(15), 우계근(5), 광한근(15), 홍면기(10), 윤경태(5), 최문현(15), 김광회(5), 사순문(5), 권영범(15), 최수근(15), 김연철(15), 이정수(15), 김석진(15), 김선윤(15), 전흥기(15), 송길성(20), 문대근(15), 김의삼(10), 박경석(5), 천창기(5), 윤재훈(15), 박정열(10), 김한국(15), 한안석(15), 송병각(15), 전승호(10), 정대천(6), 장정자(15), 윤정원(15), 심용창(10), 신재표(15), 김창수(15), 이종렬(15), 황성호(15), 박극(5), 양창석(15), 윤용범(15), 김용규(15), 서두현(15)
일반회원	5만원	권완규(5), 전윤태(5), 유후자(10), 김병욱(5), 임순희(10), 최우섭(5), 이문자(5), 이준학(5), 정세진(5), 이영국(5), 이규산(5), 정희자(5), 황의준(5), 정수영(5), 이학용(5), 권진호(5), 김명자(5), 박선미(5), 조순자(10), 김구용(5), 이동호(회)(5), 김순옥(10), 신영욱(5), 신광미(5), 이동우(5), 김병수(5)
준회원	2~ 50만원	
합 계		96명 / 1,811만원

\*후원금 : 신일기업(서울사이버대)(3,000만원)

\*사무실 구입기금 : 정세현(2,596,000원), 김방지(100만원), 조규봉(50만원), 김영구(50만원)



## 동호회 활동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동호회 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만, 회원님들께서 마음으로 늘 같이 하시고 자주 연락하심으로 돈독하고 우의 깊은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동호회 현황을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동호회명	회장	모임/장소
산우회	김원호	매월 셋째 목요일
골프회	이재호	매월 첫째 화요일, 베어크리크컨트리클럽
기우회	김용재	매월 둘째 목요일, 한국기원(종로3가) 14:00
기독신우회	이정수	매월 넷째 주 금요일
들꽃모임	온경성	짝수 월(격월) 둘째 주 화요일
한마음봉사단	김명영	매월 첫 월요일 11시~14시 (강북구노인종합복지관)
七夕會	김영일	격월(홀수 월) 넷째 주 목요일
상록회	조영규	월 2회 짝수 주 토요일
초수회	임태순	매월 첫째주 수요일
白雲會	김석진	매분기 둘째달 셋째 화요일
통마회	김영남	매분기 마지막 달 둘째 화요일
두목회	김의삼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이금회		격월(홀수 월) 둘째 주 금요일
통우회		수시
교육(주)		수시
통친회		격월



## UCOK 마당

수 필

### 楊貴妃花



김진구

(운영위원, 중국여행가)

5, 6월에 피어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을 즈음이면 이미 철이 지났을 양귀비꽃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필로폰 류의 합성 마약이 아니라 천연 마약 아편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 저는 당초 이 식물의 이름이 당나라 현종을 홀린 경국지색 楊玉環에서 유래되어 한중일 동양 3국에서는 발음이 약간 달라도 모두 한자 楊貴妃로 표시된다고 알았습니다.

하지만 각국의 사전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여기저기 뒤진 결과 밝혀낸 fact는,

양귀비꽃은 한국에서만 호칭이고, 중국에서는 罂粟(앵숙) 혹은 鴉片罂粟(아편앵숙)으로 불리며(앵숙이란 용어는 우리나라에서도 쓰지요), 일본에서는 ケシ(芥子·罂粟)로 일컬어지고 있어 명칭상 양귀비와 전혀 무관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양귀비꽃의 이름은 도대체 어디서 유래하였는가?

우리가 말하는 식물 양귀비는 크게 아편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개양귀비)로 구분할 수 있는바, 개양귀비는 아편 성분이 없으며 중국에서는 우미인의 무덤 위에 피어났다는 전설에 따라 虞美人草로 불리워집니다.

여기서 우미인은 서초패왕 項羽의 총희인 그 우미인입니다. 지식이 충만하신 여러분들께서는 다들 항우의 우미인과 당 현종의 양귀비가 전혀 다른 인물이란 사실을 명확히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도 먹고살기 바빠 역사와 문학에 무관심한 분들은 이 두 사람을 혼동하거나, 양귀비는 알아도 우미인은 생소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주위의 아저씨나 여사님들에게 시험삼아 한번 물어 보십시오.

어쨌거나, 우미인초는 대략 명나라 시절에 만주를 거쳐 조선에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래의 이름은 무슨 까닭인지 희미해지면서(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어떤 절세미녀가 비극적으로 죽고 그 무덤에서 이 꽃이 피어났다"는 전설만이 부각되자, 당시 "중국 미인 = 양귀비"의 강렬한 에로티시즘에 사로잡혀 있던 조선 선비가 의기양양하게 이를 양귀비꽃이라고 명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울러 아편앵속도 꽃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양귀비라는 같은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하였다고 여겨집니다.

그 뒤 세월이 흐르면서 아편 성분을 추출할 수 있는 앵속은 진짜 양귀비, 그렇지 않은 우미인초는 개양귀비로 명칭이 차별화되었지만, 일반인들은 둘 다 그냥 양귀비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년 전 경상북도의 어떤 지자체에서 낙동강변에 대량의 관상용 양귀비로 꽃길을 조성하였다가, 나중에 아편앵속으로 밝혀져 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각설하고, 중국인들은 우리의 양귀비꽃과 관련하여 세 번 놀란다고 합니다.

첫째는 한국에 양귀비 명칭의 꽃이 존재한다는 말을 듣고(앞에서 살펴본 대로 중국에는 에시당초 양귀비란 꽃 이름이 없으며, 일부 문헌에서 실존 인물 양귀비와 관련된 꽃으로 미모사, 해당화, 모란 등을 언급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둘째는 한국의 양귀비꽃(개양귀비)이 자기들의 虞美人草와 동일하며, 아편 원료인 앵속과 사촌 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셋째는 이 꽃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새삼 경탄하게 된답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양귀비꽃이란 명칭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역수출되어 일부 중국인(조선족 포함)들도 가끔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치명적 아편꽃 = 팜프 파탈 양귀비"는 조선 선비의 착각과 독자적인 작명에 따라 성립된 우리식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 順天사람(2)



최 승 호  
(운영위원)

지난 4월호에 게재된 수필 “順天사람”에서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護國聖業에 기여한 호남을 賞讚(상찬)했던 글을 인용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장군이 그 글을 적었던 문헌은 “난중일기”가 아니라 “私的편지”로 考證되었기에 오류를 바로 잡습니다.

장군께서는 당신보다 19세 年下이면서 당시 사헌부 持平(從五品벼슬이름)으로 있던 玄德升(天安人)에게 보낸 사적편지(1593.7.16.)에다 다음과 같은 글을 기록했었다는 것은 장군의 호남상찬이 진심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竊想湖南國家之保障(절상호남국가지보장)

가만히 생각해보면(절상) ‘호남’은 국가를 지키는 障壁이었네.

若無湖南是無國家(약무호남시무국가)

만약(약) ‘호남’이 없었다면 나라가 없었을 것이네.

사실 장군께서 말하는 ‘호남’은 호남의 자연지리와 人文 그리고 당시 爲國獻身의 대열에 참여한 모든 호남백성들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남의 후예들은 누구든 자신의 선조를 존경하고 그 자손임을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세기 후반 40여 년 간은 내 인생의 황금기에 해당되는 시기이지만 이때의 기억보다는 우선 21세기 초반인 퇴직 후의 기억들을 할애 紙面에 몇 회에 걸쳐 기록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1988년 1월 1일자로 통일부에 부임하여 11년간 일하다가 1999년 12월31일부로 퇴직하여 또 다른 일상의 長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두렵게 마치 ‘절벽산책’ 처럼 살아가는 인생의 본질은 변할 수 없었습니다.

19세기 영국 낭만주의 선구 시인 William Blake(1757-1827)는 우리 인생살이의 힘든 실상과 내면을 다음과 같이 노래한 바 있습니다.

A mark in every face I meet,  
Marks of weakness, marks of woe.

내가 만나는 얼굴마다  
피곤한 그림자와 슬픔의 빛이 깃들여 있노라.

그러나 Blake시인의 정서를 우리언어로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은 정겹고 익숙한 한국 속담을 인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꽃가마 속에도 근심이 있네.

사정이 이러한즉 꽃가마와는 인연이 없는 나의 인생은 그간 얼마나 눈물과 고뇌가 많았을 것인가? 가끔은 가슴이 설레는 낭만과 한바탕 웃음도 물론 있었겠지만, 생각하면 勞而無功한忍苦의 시간들이 黑暗의 하늘처럼 느껴집니다.

나는忍苦의 삶을 굳건하게 지탱하기 위해 내부에서 自起하는 諸惡과 투쟁하여야 했고, 또한 외부에서 유입된 각종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尙友(고전을 통하여 옛사람을 벗으로 삼는 일)와 心友(감동을 준 시인들을 벗으로 삼는 일) 두 가지를 소홀히 할 수 없었고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시인의 예술적 감수성, 상상력 그리고 통찰력에 의해 만들어진 詩는 마음에 평화를 만들고 영혼을 살찌우는 크와이어트 타임(quiet time)을 갖게 하였습니다.

나는 늘 “酒興보다는 詩興을 택하라, 그 시흥은 음미에서 오느니”라고 일러주신 故“張翼鳳(장익봉)”은사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선생님이 읊으신 애조 댄 挽歌의인 極短詩(영국 고대 시)는 삶을 달관하려고 노력하는 나의 동반자입니다.

That grief passed away : so may this sorrow pass.

저 설움 흘러갔으니 이 설움 역시 총총히 날아가거라.

기독교의 신구약 성경 66권이 모두 인류의 중요한 정신문화유산이지만, 구약성경의 “詩篇”(Psalms, 삼즈, 默音발음에 주의)은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가지가지 환난과 비극적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포근한 위안을 주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도와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내가 좋아 했던 “시편”의 시구를 인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시편 30-5)

Tears may linger at nightfall, but joy comes in the morning.

나는 지금도 기독교성경(특히“시편”)을 신앙차원이 아니고 문학서로, 영어공부 책으로 읽고 있습니다.

나는 '83년도에 광화문 보건사회부청사에서 뚝섬의 국립사회복지연수원(현재: 이마트 성수점 자리)으로 좌천되었습니다.

이 좌천은 나로 하여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상황”을 두고두고 숙고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두 가지 폐풍이 있어왔는데. 그 하나는 嫡庶(적서)의 차별이고 또 하나는 班常의 차별이었습니다. 그러나 군부독재정권이 장기화 되면서 新興폐풍이 사회에 彌滿(미만)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출신지역의 차별’이었습니다.

앞의 두 가지 舊폐풍은 왕조시대에 유교국가의 규범적 사회폐풍으로 지금은 사라졌지만, 후자는 넌지시(implicitly) 행해지는 배타적 정서의 localism으로 박정희정권의 “공직사회”에서 發芽되고 促進되어 全斗煥정권 때 사회일반에 널리 擴散되었다고 생각됩니다(私見).

공직사회는 초임 출발은 같지만 피라밋 구조에서 한정된 자리(位: hierarchy) 때문에 보직과 승진에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는 典型적 사회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다른 한편으로 배척하는 同類的 氣風(ethos)이 만들어 지는 속성이 있으나 후진국일수록 그런 공직문화가 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흥폐풍은 그런 心想형성의 “주요기준”이 “出生地의 道단위 行政區域名” 이였다는 것입니다(私見). 참으로 80년대 초기는 정상에서 벗어난 滄桑물(the troubled water)의 시대였기 때문에, 부조리와 悖德(폐덕) 그리고 아비함이 넘실대었고 이 때 날개를 단 ‘신흥폐풍’은 일반사회에 널리 확산되었다고 생각합니다(私見).

그래서 나는 浮世의 삶을 이어 가기위해 사랑과 仁과 자비를 갈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일했지만 끝내 외면당했습니다. 좌천 인사로 내 마음에 상처를 낸 그 강성 localist는 직장윤리 의식이 박약하여 자신의 속내(로컬리즘)를 감추고 주변의 여론이다 혹은 世評이다 云云하면서 상사를 험담, 능욕하기도 하고 부하에 대한 저평가와 非호감을 주저하지 않고 표출하는 豪放(호방)함을 보였습니다.

천성적으로 사회현상에 대해 남달리 감수성이 예민한 나는 당시 시대상황인 ‘異常한 한국 사회’를 심층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심리학의 명저인 엘리야스 카네티(Elias Canetti:1905~1994,독일)의 『군중과 권력』(Masse und Macht)을 탐독하였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카네티”의 필생 역작인 이 책은 나에게 두 가지 영감을 주었습니다.

1. 한국사회에는 군부독재권력과 共生하면서 이를 받쳐주는 강력한 지주역할을 하고 있는 로칼리즘의 ‘대중’(Masses)이 존재한다. 이 군중이 소위 ‘박해군중’이다.
2. 그리고 이들이 시장, 기업, 특히 행정부와 군대에 Invisible Barrier(보이지 않는 장벽)를 만들어 내고 있다.

나는 언젠가 짓곳은 우연으로 그분을 지하철역에서 만난 일도 있었으나 공자님의 가르침인 ‘出門如見大賓’(출문여‘현’대빈 : 만나는 사람을 큰 손님처럼 대하라)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한 시대를 반죽했던 소위 ‘박해군중’의 유별난 一員이었기 때문입니다.

依命 뚝섬근무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퇴근하여 어느 때처럼 터벅터벅 혼자 뚝섬 경마장 근처 도로를 따라 버스정류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젊은 사내가 나에게 다가와 “선생님”하고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기 천막으로 가서 아파트 분양 받으세요”

어리둥절한 나는 순간적으로 그의 묵직한 손에 의해 거의 강제로 끌려갔는데 이번에는 더 나아가 내 오른 손의 엄지손가락(拇指 무지)을 꼭 붙잡아 아파트분양계약서에 강제로 指章을 찍었습니다. 계약금을 내지 않은 분양계약서를 쌍방이 갖게 되었는데 이는 아파트 분양에 유레가 없는 희한한 일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여정의 苦海에서 어떤 현안과제에 당면하면 해결의 길을 찾고자 고민하며, 막막할 때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신에게 매달려 기도도 할 것입니다. 나도 아파트분양계약의 고민사항을 두고 생각을 계속하니 神이 그 해법을 알려 주었습니다.

“思之思之鬼神通知(사지사지귀신통지)”

곧 은행용자를 받아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내 名義로 성수동 뚝섬에 집을 마련했을 때는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상경한 어머님과 아버님은 ‘고생한 아들이 집을 샀으니 미안도 하고 대견스럽다’고 했습니다. 그 때의 아버님을 지금은 뵙지 못하니 세월이 원망스럽고 인생은 눈물입니다.

가끔 뚝섬 집을 장만했을 때의 “우연한 일”을 생각할 때마다 당시 좌천인사에 감추어져 있었던 하늘의 뜻을 感知하고 더욱 더 착한 삶을 이어갈 것을 다짐하곤 했습니다.

성수동 뚝섬 집은 南向 5층 아파트의 3층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승강기가 없어서 집을 옮길 때마다 힘들었고 집안이 좁고 어두운 것이 흠이었습니다. 특히 아내는 인근 경마장에서 날아오는 어린애주먹 만한 말똥 파리들에게 신경이 쓰여 팔고 이사를 갈 것을 고집하였고, 나는 生涯 처음으로 구입한 집이라는 由緒(유서)를 강조하며 팔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통일부 퇴직 후에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고자 성수동 뚝섬 집은 팔지 않고 전세금을 뺏아 여기에 퇴직금을 보태어 의정부 번두리(녹양동)에 분양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하기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세계의 유명 도시들이 강을 끼고 발전하고 있듯이 현재 성수동 뚝섬 집은 그 立地조건으로 인하여 최근 理財에 밝은 사람들이 미래비전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李世基의원님(전 통일부장관)의 열성이 基本이 되어 뚝섬경마장이 과천으로 옮겨가고 지하철 분당선도 개통되었고, 이명박 시장님이 추진한 ‘서울숲공원’이 조성되니 교통 및 주거 환경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기에 奇貨可居를 안겨준 40여 년 전 ‘뚝섬 길에서 조우한 生面不知의 사내’를 飲水思源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의 先親은 내가 어렸을 때 유명한 사주쟁이를 찾아가 장남 사주를 보았고, 돌아 오셔서 적어온 내용을 이야기 해 주었는데 항상 기억에 떠오르는 것은 ‘거처를 북쪽에 두어야 吉運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양의 농경사회는 ‘인간의 길흉화복과 부귀빈천이 姓名, 四柱, 觀相, 陰宅, 陽宅에 의해 결정된다.’는 미신이 팽배했습니다. 우리의 농경사회를 지배한 이런 運命사상에 반기를 든 茶山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人定勝天(인정승천)

(사람이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사주팔자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노력이 운명을 이긴다.’라는 주장은 왕조국가에서 일반대중에게 전파될 수 없는 위험한 개인의 관념적인 세계관으로 당시는 매우 혁명적인 사고였습니다. 丁若鏞 선생님의 말씀처럼, 참으로 인생에 대한 樂觀的 姿勢와 希望의 堅持 그리고 ‘절실한 노력’은 바로 개인의 성공과 사회 변화의 원동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의정부 이사는 분명히 제 기억 속의 ‘사주’ 이야기가 결정적 작용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미신이라고 하면서도 따르고 믿는 것은 아마도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스스로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無力하고 어려워 서 貧賤인생을 벗어나려는 욕망 때문에 미신을 믿게 되는 경우일 것입니다. 둘째는 지금의 富貴(出世)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더 한 단계 오르려는 욕심과 집념 때문에 미신과 영합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셋째는 종교적인 미신이 들어오는 경우일 것입니다. 종교적 미신의 대표적인 것은 ‘인간은 구원받을 존재’라는 미신입니다(私見).

의정부로 이사한 후 수령연금이 적다보니 家計생활이 팍팍하여 정수기 외판사원이 되었습니다. 육군소령으로 예편한 사람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러나 온 종일 헤집고 다녔지만

판매실적이 없는 날이 쌓여만 가니 의기소침해지고 회사의 밥값만 축내는 것이 미안하여 그만 두었습니다.

사실 그 회사는 먼저 내가 정수기를 사고 연후에 외관하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나 역시 정수기를 살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외관 일을 하는 동안 걷기가 많아져서 그 동안의 과체중이 정상체중으로 돌아오고 수면은 꿀잠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정상체중과 정상수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고난의 길은 불행의 길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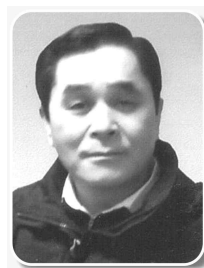
녹양동 새 아파트에 時差를 두고 이웃들이 입주하자 현관에서 벨이 울리는 빈도가 많아졌습니다. 외관하는 분들, 행상하는 분들, 선교하는 분들, 집의 하자를 점검하고 보수하는 시공사와 관리소 직원들이었습니다. 人生長征에서 볼 수 있는 ‘미세하지만 흥미로운 풍경’ 들일 것입니다. 이런 치열한 삶의 바탕은 내 외관경험으론 ‘건강’이었습니다. 나도 이들과처럼 건강하게 더 열심히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格調있는 인생’을 살자고 다짐을 했고 그것이 인생 최후의 승리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안일과 나태를 경계하고 건강을 도모하는 爲己생활을 인생후반의 ‘삶의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어느 날은 거실에 놓여 있는 바둑판과 바둑알을 경비실에 주면서 이것을 버리겠다고 상의 하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버리겠습니다.”

禁煙은 오래전에 성공했으나 아직도 이루지 못한 금주생활을 생각하고 있던 차에 탁자장에 왕자처럼 모셔 있는 양주병을 발견하고 신라 김유신 장군의 愛馬斷頭 전설을 생각하며 혼자 몰래 그것을 하수구에 흘려 보내는 斷酒式을 감행했습니다. 이것은 조카가 제대하면서 PX에서 사온 선물로 미안한 상념은 있었으나 나의 결기는 단호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禁酒律已를 위배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런 自強不息의 爲己生活로 건강이 회복되고 강건한 몸이 유지되어 지금 이 늦은 밤에 수필을 typing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

## 내 나이가 어때서요?



**윤 용 범**

(운영위원)

새벽종이 울리면 너도 나도 일어나서요.  
새마을 운동하던 그 시절에요.  
강화도 제 고향 마을에 대학생은 드물었어요.

지금이야 너랑 나랑 우리 모두요.  
대학생이 차고 넘치지만요.

하니 제 어머니는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 난 줄 아셨어요.  
덕담이랍시고 남들이 하는 빈 말에요.  
고무되셨지 싫어요.

“큰 아들,  
고시공부하고 있시까?  
얼마나 좋시까?  
총각 강화군수거처 국회의원도 하고요.  
내무부장관도 하갈시당,

보릿고개에 잘 먹이지도 못한 우리 새끼는요.  
가방끈이 짧시다.  
인항버스 조수로 취직했시다.”

하니 순박한 제 어머니를 탓할 일이요.  
아니었지요.

빛나는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고는요.  
인천중학생으로 푸른 꿈을 안고요.

어머니의 손을 놓고 출향한 이래로요.

금방(金榜)에 이름 걸고요.  
금의환향(錦衣還鄉)한답시고요.  
우쭐했지 싶어요.  
수양이 부족한 제 탓이었어요.

더구나 돼지 팔고 소도 팔고 논밭 팔아서요.  
대학교육 받은 친척 형이요.  
서울 장안의 부잣집 사위가 되었지요.  
팔자 고쳤다고요.  
온 동네방네 소문이 자자했으니까요.

어머니는요.  
어찌다 들어오는 제 혼담을요.  
일언지하에 거부하시곤 했어요.

교장 딸도요.  
면장 딸도 이장 딸도요.  
새마을지도자 딸도요.  
고개 넘어 목장집 딸마저 도요.

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공부도 한 때란다.  
색시감은 얼마든지 있다.  
여자 보기를 돌 같이해야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란다.”

하지만요.  
어머니가 도라지나물 먹이듯이 먹인 강화 인삼기운인지요.  
여자보기를 돌같이 하기는커녕요.  
선데이 서울 잡지 표지모델 사진보면서요.  
황홀한 상상 많이 했어요.

짝사랑했던 모델이 재벌회장 세컨드로 픽업되었다기에요.



실속 없이 분개도 했고요.

머니 머니해도요.

머니가 짱이고 머니가 있어야 모델도 만나지 싶더라고요.

하니 경제학 책을 보아도요.

해골만 뒤숭숭하고요.

책장이 넘어 가지를 앓았으니요.

금방에 이름 걸고 금의환향이고 나발이고요.

행정학 고득점하고 도요.

경제학 과락으로 거둬 낙방이라니요.

콩밭 매던 제 어머니도 울고요.

저도 울고요.

부영새도 울었어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통일꾼되어 살아 온 날이요.

꿈이었지 싶어요.

과거는 흘러갔다 예요.

각설하고요.

제 어머니가요.

일언지하에 거부한 고개 넘어 목장집 따님이요.

봉황 새될 줄이야.....

사람 인연이요.

멀고도 가깝구나 싶어요.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지요.

제 어머니나 저 같은 중생이요.

어찌 봉황새를 알아보았으리요?

하기야 봉황새도요.

때를 만나 인연을 만났으니 봉황이지요.

아니라면요.  
그냥 참새로 남을 수도 있었겠지요.

혹시라도요.  
봉황새가요.  
제 글을 보신다면요.  
한 마디 하지 싶어요.

“아이 고마!  
별 미친놈이 별 헛소릴 다하네 그라,  
내가 하마터면 채수 움 불을 뻘했네,  
순진한 처녀선생께 빌붙어 평생 백묵가루만 먹었다면서,  
쫄 데기가 뭐가 어찌고 어찌?

이놈아!  
내가 무엇이 아쉬워,  
너 같은 개털을 거들떠나 보았겠냐고?  
중앙정보부한테 잡혀와 쥐 터지기 전에,  
그 입 다물어라,  
입을 찢어 놓기 전에,

내가 남에 남자 아가리 찢을 만큼요.  
독한 강화 덕은 아니다만”  
파랑새는 멀리 있지 않아요.  
다가오는 인연들요.  
지나치는 인연들 잘 살펴보아요.

누구를 만나고요.  
누구와 인연을 맺느냐에 따라서요.  
인생의 그림이요.  
모두 다 달라지지 싶어요.

순간의 선택이요.  
평생을 좌우하지 싶고요.

그렇다고요.

제가 진짜 개털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범털도 아니지만요.

기라성 같은 전문 자격사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법률시장에서요.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로서 검증 받았고요.

최근 행정사법 개정예 힘입어서요.

난립하던 각종 행정사협회가 모두 청산되고요.

대한행정사회 하나로 통합되어 새롭게 출범해요.

전 국정원장이자 김만복 행정사사무소 대표가 초대 회장으로 취임했구요.

행정사가 명실상부한 전문자격사로서 자리매김하지 싶어요.

우리 한국통일협회 후광에 힘입어 저도 이사 취임을 승낙했어요.

덕분에 감사해요.

작년에는 호기심에 아들 또래의 경찰관들과 어울려서요.

탐정교육 열심히 받고요.

노느니 염불한다고 사설탐정사(PIA) 자격증 하나 더 쟁겼어요.

물론 직접 탐정 업을 수행할 것은 아니지만요.

행정사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지 싶어요.

남들은 저보고요.

“당신 왜 그 나이에 불쌍하게 일하냐?

다 늙어 죽도록 공부만 하다 뒤질 거냐고?

언니!

여기 막걸리 두 사발에 낙지 한 사라,

노새! 노새!

코가 새 빨게 질 때까지 취해 해롱거리세”

하지만 제 생각은 달라요.

호기심을 잃을 때 진짜 늙은이 되지 싶고요.

우리의 삶은 끝이 있지만요.

배움은 끝이 없지 싶어요.

제 나이가 어때서요?

백세시대라는데요.

60대는 청춘만세고요.

다가올 70대는 황금기지 싶어요.

비록 내일은 북망산천 간다 할 지라도요.

밥 숟가락들고 문지방 넘을 힘이 남아 있는 지금은요.

밝고 환하게 웃으며 살아가자고요.

백신주사 걱정 마시고요.

접종하세요.

저도 맞았어요.

다소 겸손치 못하고 교만스런 소리이고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늘이 허락하셔야만 하지만요.

한 마디만 더 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만수무강 하시기를 축원 드려요.

제 백수연 때 정중하게 모시고자 하니요.

귀신 되어 떼로 몰려와 남에 잔치 망치지 마시고요.

부디 우리 모두 강건하시자고요.”

## 30년 세월



이 준 우

(이 사)

어린 시절, 40년전 작고하신 조모님께서 어느 날 며느리인 어머님께 하신 말씀이 기억난다.  
한세상이 노루꼬리만 하구나~.

人生如草露

會合不多時

조선왕조 10대 국왕 연산군의 시다. 중종반정이 있던 해인 31세가 되던 해에 궁궐후원의 연회에서, 장녹수에게 풀잎을 들어 보이며 읊은 詩다.

인생을 草露에 비유한 사람이 어디 연산군 뿐이겠냐만, 허무하고 덧없는 生을 그린 詩가 아닌가...

우리는 태어나며 줄서기가 시작된다. 증조부, 조부, 부모형제와 나로 이어지고, 그리고 족보를 따지는경우 누구의 몇 대 손, 사회적으로보면 초등학교때의 아침조회시의 소위 "앞으로 나란히"의 줄서기 및 성적 등의 학창생활의 줄서기, 가업의 계승 및 직장에서의 줄서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직후등 노후 생의 종착역을 향한 줄서기...

이탈리아 로마 어느 공동묘지 입구에는 라틴문구로 "호디에 미히, 크라스 티비" hodie mihi , cras tibi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오늘은 내가 관이 되어 돌아오고, 내일은 자네가 관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한다.

종착역을 향한 기차는 마지막 힘겨운 기적을 울리며 가속도가 붙어 곧두박질치듯 질주하고 있다.

결국 너나 할 것 없이 애써 태연한 모습으로 한세상을 회고하면서, 머무르고 버티고 싶지만 하루를 이어 다음 하루를 가슴에 안듯 맞이하고, 작별하고 있다. 아쉬움과 함께 귀한 손님과도같이 소중한 하루하루를, 그리고 일년 십년을~~.

나는 언제부터인가 하루를 이렇게 살고 있고 또 살고 싶다.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은 봄,

화창한 낮은 여름.....

소슬바람과 함께하는 저녁은 가을, 그리고 밤은 겨울~~.

그래서 하루를 일년과도 같이 살고 있다.

그러면, 한달이면 30년.....

삼십년 세월이 아닌가~

중국 고대 田園詩人 도연명이 관직생활을 마치고 귀향하여 그의 지난 벼슬생활을 一去三十年 이라고하며, 빠르고 허무한 세월을 보냈다고 한탄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佛家용어로 一切唯心造라고, 생각하기에 따라, 기나긴 여생이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 漢詩

## 春來不似春

(봄이 와도 봄 같지를 않네)



淇竹 金錫珍

(운영위원)

處處芳花滿發迎

처 처 방 화 만 발 영

곳곳에 향기로운 꽃들이 만발해도

乾坤陰氣蔓橫行

건 곤 음 기 만 횡 행

온 세상에 음산한 기운이 널리 퍼져  
돌아 다니네

猖狂病毒惶全國

창 광 병 독 황 전 국

코로나가 창궐하여 온 나라가  
두려움에 떨고 있고

潛伏瘟因苦衆生

잠 복 온 인 고 중 생

전염병인이 잠복하여 모든 사람들이  
고통스러워 하네

與野相誹訐政治

여 야 상 비 홍 정 치

여당과 야당은 서로 비방하여 정치가  
어지럽고

美中各貶殆和平

미 중 각 폄 태 화 평

미국과 중국은 제각기 서로 폄하하여  
평화가 어지럽네

春來不似春心亂

춘 래 불 사 춘 심 란

봄이 왔어도 봄 같지 않아 마음이  
어지러워

一盞詩歌詠臥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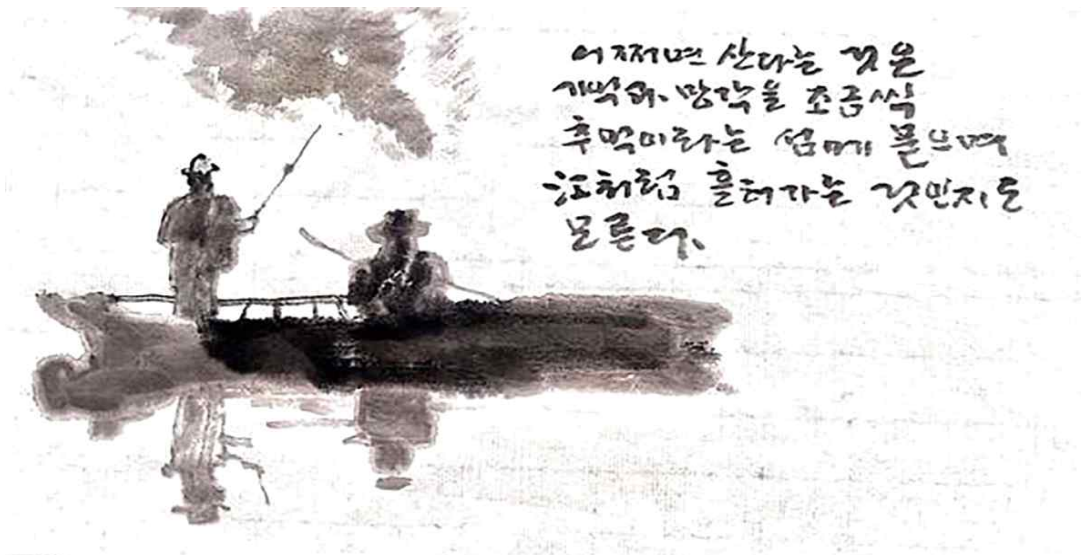
일 잔 시 가 영 와 경

한잔하고 비스듬히 누워 시가를  
 읊조려 보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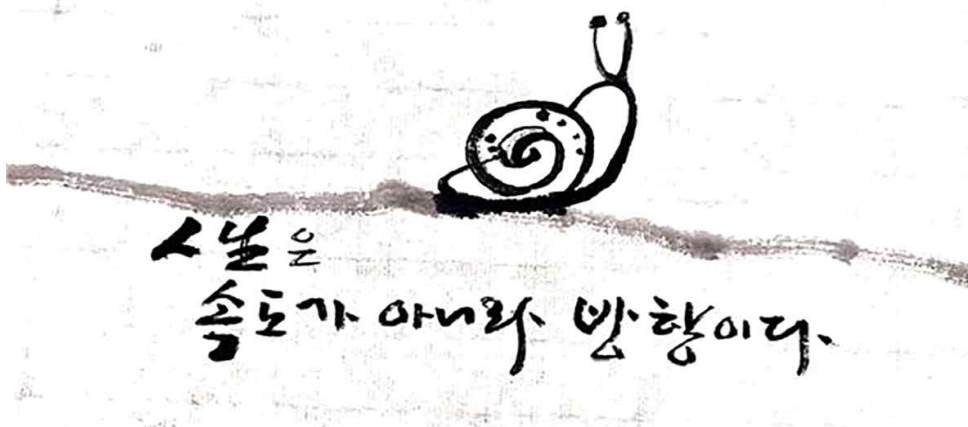
書 畫



고성용  
(서 화 가)



어제부터 산다는 것은  
기쁘고 망락을 조금씩  
추억이라는 섬에 붙으며  
강처럼 흘러가는 것만으로  
모른다.



사람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 건강코너

### 무극보양뜸 이란 무엇인가?



**서 상 덕**

(이사,  
한국정통침구학회 정회원)

뜸이란 고대(古代)부터 우리 조상들이 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위해 사용해 내려오는 전통적인 방법이다. 무극보양뜸은 故 구당 김남수 선생이 침구(鍼灸)로 평생을 아픈 사람을 진료하면서 터득한 뜸을 이용한 치료 방법이다. 무극보양뜸은 병의 예방에도 좋지만 병의 치료에도 매우 좋다. 특히 양방이나 한방에서도 치료가 어려운 만성적인 병의 치료에 탁월한 효능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한국통일협회에서도 회원님들의 건강에 기여하고자 매주 화요일에 무극보양뜸을 뜨드리고 있다.

무극보양뜸은 8개 경혈 12자리(여성은 13자리)에 쌀알 반톨(半米粒大) 크기로 매일 한 자리에 3~5장씩 뜸을 뜨는 뜸법으로 병이 있고 없고를 떠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생활 양생법이다.

#### (1) 무극보양뜸의 의의

무극보양뜸은 구당 침뜸의 핵심으로 기혈과 오양음행의 평형 원리에 따라 창안된 뜸 요법이다. 무극 보양뜸은 구당 김남수 선생이 옛 의서(醫書)에 기록된 거의 모든 뜸술을 20여년의 임상을 통해 거듭 검증하고 연구하여 세상에 자신 있게 내놓은 뜸에 관한 최고의 비술(秘術)이다. 특허청에 등록까지 마친 무극보양뜸은 수많은 환자를 통해 효능이 입증

되었으며, 누구나 쉽게 배우고 따라 할 수 있다.

즉 무극보양뜸은 어느 누구나 어떤 질병에도 쓸 수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한 의술이며 병을 치료하는 치료법이고, 병을 예방하는 예방법으로 병이 없어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 ① 무극(無極)

무극이라는 의미는 우주의 생성과 운행의 원리를 의미하는 태극 이전의 보다 근원적이고 광대한 상태를 나타내는 사유개념이다. 이것은 무극보양뜸의 놀라운 임상효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무극보양뜸이 가지는 시술의 간편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진정한 인술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 ② 보양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잘 먹지를 못해 병마와 싸워 이길 힘이 없어서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무극보양뜸은 잘 먹고 잘 소화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무극보양뜸의 보양은 이렇게 음식물을 잘 소화시키고 섭취해서 자양분을 기르는 것이 건강의 기본이자 으뜸이라는 개념을 나타낸다.

## (2) 무극보양뜸의 구성원리

사람은 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소화흡수 기능 이상에서 오는 영양부족으로 죽는다. 즉, 몸의 중심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이 잘 먹고 잘 소화시키는 기능을 오장육부 중 비위(脾胃)라는 장부에서 관장한다고 말한다. 비위가 튼튼하여 음식을 잘 먹고 잘 소화시키면 절로 활력이 생기니 그것이 바로 건강이다.

예로부터 삼쾌(三快)라고 하여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것’이 건강의 척도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강조되는 것이 ‘잘 먹는 것’이다.

무극보양뜸 중 중완(中腕), 곡지(曲池), 족삼리(足三里)는 모두 비위를 보양하는 혈자리이다. 그 외에 나머지 다섯가지 경혈은 오장육부 나머지 장부를 보양한다.

생명과 생식의 근원인 신장 기능을 강화하는데 아랫배의 기해(氣海), 관원(關元), 호흡기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폐유(肺俞), 심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몸 속 깊은 병을 치료하는데 고황(膏肓), 심장은 마음을 주관한다고 하여 심신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백회(百會)를 각각 사용한다.

여성의 경우, 기해(氣海), 관원(關元) 대신에 수도(水道)를 사용한다. 여성은 월경을 하는 생리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월경은 액체로 물이다. 그러므로 ‘수(水)’자가 들어가는 자리인 수도(水道)와 방광(膀胱)의 모혈(募穴)로써 이뇨작용을 돕고 자궁기능에 관계되는 중극(中極)을 사용한다.

또한 무극보양뜸에는 음양오행사상이 그대로 녹아있다.

몸통은 음이요 팔은 양이요, 팔이 양이라면 다리는 음이요. 복부가 음이라면 등쪽은 양이요, 좌측이 양이면 우측은 음이다. 무극보양뜸은 이러한 이치로 상하·전후·좌우로 서로 경혈을 배합하여 음양의 평형을 이루고자 하였다.

음에 위치한 아랫배 하단전에서 기해(氣海), 관원(關元)으로 우리 몸의 기가 농축된 ‘정기’를 저장케 하고, 양에 위치한 상부의 등이 폐유(肺俞), 고황(膏肓)으로 심장과 폐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전신에 기와 혈을 골고루 뿌려주게 한다. 좌우의 곡지(曲池), 족삼리(足三里)는 좌우 음양과 팔의 곡지(曲池), 다리의 족삼리(足三里)는 상하 음양을 조절하는 배합이다.

오행의 이론에서 보면 중앙의 토(土)를 관장하는 중원을 중심으로 좌우 사방으로 뻗어나간 팔다리의 곡지(曲池)와 족삼리(足三里)는 목(木), 화(火) 금(金), 수(水)의 작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모든 양의 근본인 팔다리의 활성화는 몸통의 상하·좌우에 있는 목(木), 화(火) 금(金), 수(水)에 해당하는 오장의 간(肝)·심(心)·폐(肺)·신(腎)의 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 몸은 정신과 육체가 분리될 수 없는 존재다. 정신의 사령탑인 뇌가 아프면 육체가 병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모든 양기(陽氣)가 모이는 백회(百會)를 사용하였다.

구당 김남수 선생은 평생 병원을 가지지 않으셨다고 한다. 오직 무극보양뜸으로 건강을 유지하며, 106세까지 사시면서 인류의 건강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구당 김남수 선생님께 우리 의료사에 깊이 남을 것이며, 고인이 되셨지만 깊은 마음으로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 코로나19 심리방역을 위한 마음건강지침

자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1. 불안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과도한 불안은 우리를 지나치게 예민하게 만들고, 몸과 마음을 소진시켜 면역력에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2. 정확한 정보를 필요한 만큼만 얻으세요.**

불확실한 정보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가중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어렵게 합니다. 뉴스를 백번 본다고 내게 필요한 정보가 백번 얻어지지 않습니다.

**3. 혐오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혐오는 감염 위험이 있는 사람을 숨게 만들어 방역에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우리의 적은 감염병이지 병에 걸린 사람이 아닙니다.

**4. 나의 감정과 몸의 반응을 알아차리세요.**

전염병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불안과 긴장은 타당한 반응이지만, 과도한 두려움이나 공포감에 압도되고 특히 불면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정신건강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불확실함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세요.**

신종 전염병은 많은 것이 불확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통제 가능한 활동으로 주의를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가족과 친구, 동료와 소통을 지속하세요.**

감염 위기 상황에서는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외로움, 소외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화상 전화, 메일 등을 이용해서 진심으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7. 가치 있고 긍정적인 활동을 유지하세요.**

긍정적 감정과 행동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주위 사람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일 수 있습니다. 편지를 쓰거나 매일 일기나 기록을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8. 규칙적인 생활을 하세요.**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고, 가벼운 운동을 통해 활력을 유지하세요. 특히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자고 깨는 것이 정신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9. 주변에 아프고 취약한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코로나19는 치사율은 낮지만 고령자, 만성질환자, 장애인에게 높은 위험을 보입니다. 주변 취약한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십시오. 남을 돕는 이타적인 행동이 나의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10. 우리 서로를 응원해주세요.**

모두가 힘든 시기를 이기는 힘은 사회적인 신뢰와 연대감입니다. 악플이나 댓글 대신 감사의 글과 응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